

간호대학생의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련성 연구

유장학* · 김해진** · 천의영*†

*수원여자대학교 부교수, **창원대학교 조교수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ang Hak Yoo* · Hae Jin Kim** · Eui Young Cheon*†

*Associate Professor, Suwo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ultural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y and examine their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13 nursing students at the nursing college in Gyeonggi-do.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September 7th to November 7th, 2022.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 17.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score for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was 3.81 points. Clinical competency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ultural competence($r=.420$, $p<.001$) and professional self-concept($r=.706$, $p<.001$). Factors influencing the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were cultural competence($\beta=.241$, $p=.001$) and professional self-concept($\beta=.639$, $p<.001$). A total of 53.9% of clinical competency was explained by cultur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F=44.574$, $p<.001$).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iculum that can improve clinical competency in multicultural nursing clinical field and to establish an attitude toward cultural nursing competency.

* 본 연구는 2022학년도 수원여자대학교 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접수일 : 2023년 3월 26일, 수정일 : 2023년 4월 24일, 채택일 : 2023년 4월 24일

교신저자 : 천의영(1663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Tel: ***-****-**** Fax: 031-290-8046, E-mail: astra20@swc.ac.kr

Key words: Cultural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Clinical Competency, Nursing Students, Health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간호사가 보건 의료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자를 간호하는 것은 대상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과정이다.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인 언어장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의료인의 외국인 환자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의료서비스 만족에 차이를 보였다(이병숙 등, 2011; Tian Yuzhuo 등, 2021). 간호사 또한 외국인 환자를 간호하면서 시스템과 자원 결여, 문화 간 차이, 지식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최윤경 등, 2018). 이러한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로 간호사의 문화역량 강화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교육과 실무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다(최윤경 등, 2018).

문화적 역량은 외국인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민감한 돌봄을 제공하고 환자 개인이 보유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돌봄 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능력이다(오원옥 등, 2016).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문화간호 역량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 교육과정에서도 문화간호 역량의 필요성이 확산되었고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교과목이나 교과 외 활동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22). 문화간호역량은 대상자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능력 있고 유용한 건강관리 전문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강혜영, 2015) 간호역할

에 대한 전문직 자아개념의 확립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견해로(Arthur, 1990) 간호업무 수행, 직무만족,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적이고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가지고 있을 때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스스로도 만족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간호사의 위치를 확립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된다(권영미와 윤은자, 2007).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양혜주, 2020; 강민아와 이수경, 2016), 특히 임상수행능력을 설명하는 주요 영향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전은미, 2019). 간호대학생 시기에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것은 졸업 후 다양한 대상자의 간호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요소가 된다.

한편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사가 간호실무 상황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판단력, 기술을 통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Barret & Myrick, 1998), 간호학생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능숙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상수행능력을 함양하고 평가하는 것은 간호교육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간호교육의 목표는 국내외 보건 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는 것으로(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22) 다문화사회에서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역량을 고려한 임상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전은미, 2019; 황종원과 박현주, 2019) 문화역량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

구는 미흡하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간호교육과정 및 보건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간호사는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문화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나 외국인환자를 간호함에 있어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은 환자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을 통해 간호사의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이 현존하는 임상간호현장에서의 문화간호역량 및 전문직에서 가지는 자아개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대상자들을 돌보는 예비 간호사들의 역량 증진과 보건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다문화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간호교육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도구

1) 문화간호역량

간호에서의 문화적 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자발적 인식과 공감적 민감성을 토대로 건강신념, 건강관습 및 문화건강관련 지식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유와 경험을 체득하여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간호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돌봄을 제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한석영, 2014)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석영(2014)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문화간호역량 도구는 문화적 인식 4문항, 문화적 지식 9문항, 문화적 민감성 4문항, 문화적 기술 6문항, 문화적 경험 4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석영(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2)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기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Arthur, 1990)로, 본 연구에서는 Arthur(1990)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도구(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송경애와 노춘희(1996)가 번역한 것을 서원희(2007)가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는 전문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원희(2007)

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사가 간호실무 상황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판단력, 기술을 통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Barret & Myrick, 1998)으로, 본 연구에서는 Schwirian(1978)의 Six-Dimension Scale를 기반으로 이원희 등(1991)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최미숙(2005)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임상수행능력 도구는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과 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매우 잘 못한다' 1점, '매우 잘 한다' 5점으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미숙(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97이었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 대학 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이는 임상수행능력 자료수집을 위해 임상현장경험을 고려하여 임상실습을 1학기 이상 이수한 3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 URL을 통한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자는 총 120명이었으며, 이중 응답이 불충분하였던 7명을 제외한 113명의 응답을 최종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효과크기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중간정도

의 효과크기 0.15로 설정하였다. G-power 프로그램에서 효과크기는 0.15, 유의수준은 α .05, 검정력은 .80, 예측변수 총 8개를 표본수로 계산한 결과 최소 표본수가 105명이 분석에 요구되어 본 연구는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3, 4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에 접속 가능한 URL을 학과게시판과 SNS를 통하여 자료수집을 공지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온라인 설문 URL에 접속하여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알렸으며,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분석을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리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만 온라인 동의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설문은 학생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학생 개인별 연구 참여 여부를 교수가 알 수 없도록 연구에 필요한 자료 외에는 개인정보가 일체 수록되지 않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간호대학생의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항목의 사후 분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하였고,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나이는 평균 25.57(± 6.49)세였으며, 4학년 학생이 54.0%로 많았다. 종교는 없음이 64.6%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21.2%, 천주교와 불교는 7.1%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중이 81.4%로 가장 많았고, 상 10.6%, 하 8.0% 순이었다. 주관적 외국어회화수준은 중이 53.1%로 가장 많았고, 하 37.2%, 상 9.7% 순이었다.

2. 연구 대상자의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

본 연구 대상자의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 2).

문화간호역량은 평균 3.36 \pm 0.52점이었고, 구성요소별 평균 점수는 문화적 인식이 4.36 \pm 0.54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적 민감성 4.18 \pm 0.59, 문화적 기술 3.27 \pm 0.87, 문화적 경험 2.97 \pm 0.91, 문화적 지식 2.79 \pm 0.68 순이었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평균 2.77 \pm 0.46이었고, 구성요소별 평균 점수는 의사소통이 3.00 \pm 0.59점으로 가장 높았고, 만족감 2.77 \pm 0.61, 전문적 실무 2.70 \pm 0.58 순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81 \pm 0.57이었고, 구성요소별 평균 점수는 교육/협력관계가 3.89 \pm 0.68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의사소통 3.83 \pm 0.69, 전문직 발전 3.82 \pm 0.63, 간호과정 3.80 \pm 0.59, 간호기술 3.76 \pm 0.65 순이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3)			
특성	구분	n or M	% or SD
나이		25.57	± 6.49
학년	3학년	52	46.0
	4학년	61	54.0
종교	기독교	24	21.2
	천주교	8	7.1
	불교	8	7.1
	없음	73	64.6
	상	12	10.6
주관적 경제상태	중	92	81.4
	하	9	8.0
	상	11	9.7
주관적 외국어회화수준	중	60	53.1
	하	42	37.2

〈표 2〉 연구 대상자의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

(N=113)			
변수	M(SD)	skewness	kurtosis
문화간호역량	3.36(±0.52)	.491	-.094
문화적 인식	4.36(±0.54)	-.409	-.391
문화적 지식	2.79(±0.68)	.426	.551
문화적 민감성	4.18(±0.59)	-.318	-.556
문화적 기술	3.27(±0.87)	-.149	-.053
문화적 경험	2.97(±0.91)	-.014	-.494
전문직 자아개념	2.77(±0.46)	-.041	-.223
전문직 실무	2.70(±0.58)	-.020	-.602
만족감	2.77(±0.61)	-.476	-.042
의사소통	3.00(±0.59)	-.471	.205
임상수행능력	3.81(±0.57)	-.110	-.492
간호과정	3.80(±0.59)	-.247	.287
간호기술	3.76(±0.65)	-.320	-.456
교육/협력관계	3.89(±0.68)	-.271	-.054
대인관계/의사소통	3.83(±0.69)	-.200	-.102
전문직 발전	3.82(±0.63)	-.362	-.09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수행능력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3). 문화간호역량 점수는 주관적 외국어 회화수준($t=3.255,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문직 자아개념 점수는 종교 유무($F=2.339, p=.022$)와 주관적 외국어회화수준($F=2.209, p=.00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 점수는 주관적 외국어회화수준($F=2.590, p=.01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4). 종속변인인 임상수행능력은 문화간호역량($r=.420, p<.001$) 및 전문직 자아개념($r=.70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화간호역량과 전문직 자아개념($r=.282, p=.002$)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 차이

(N=113)

변수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	
		M±SD	t or F(<i>p</i>)	M±SD	t or F(<i>p</i>)	M±SD	t or F(<i>p</i>)
학년	3학년	3.43±0.57	.1,329 (.187)	2.68±0.52	-1.759 (.082)	3.72±0.65	-1.680 (.096)
	4학년	3.30±0.47		2.83±0.38		3.90±0.49	
종교	유	3.46±0.56	-1.483 (.141)	2.90±0.51	-2.339 (.022)	3.91±0.51	-1.399 (.165)
	무	3.31±0.49		2.68±0.41		3.75±0.67	
주관적 경제상태	상	3.44±0.54	.119 (.806)	2.95±0.51	.684 (.197)	3.79±0.54	.126 (.828)
	중	3.35±0.52		2.76±0.45		3.83±0.57	
	하	3.41±0.54		2.59±0.47		3.71±0.69	
주관적 외국어 회화수준	상	3.81±0.56	3.255 (.002)	3.01±0.38	2.209 (.004)	4.13±0.50	2.590 (.018)
	중	3.39±0.42		2.84±0.347		3.88±0.53	
	하	3.21±0.58		2.60±0.40		3.64±0.60	

〈표 4〉 대상자의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

(N=113)

변수	문화간호역량 <i>r</i> (<i>p</i>)	전문직 자아개념 <i>r</i> (<i>p</i>)	임상수행능력 <i>r</i> (<i>p</i>)
문화간호역량	1.00		
전문직 자아개념	.282(.002)	1.00	
임상수행능력	.420(.000)	.706(.000)	1.00

5. 문화간호역량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문화간호역량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만족하기 위하여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컸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2.011로 2에 가까운 수치로 종속변수가 자기상관성이 없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문화간호역량과 전문직 자아개념과 함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주관적 외국어회화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4.574$, $p<.001$). 각 변수가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화간호역량($\beta=.241$, $p=0.001$), 전문직 자아개념($\beta=.639$,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53.9%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5〉 문화간호역량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β	t	p
	.716	.390		1.835	.069
문화간호역량	.264	.076	.241	3.488	.001
전문직 자아개념	.797	.086	.639	9.272	.000
주관적 외국어회화수준	.002	.063	.003	.039	.969

$R^2 = .551$, Adj. $R^2 = .539$, $F = 44.574$ ($p < .000$)

IV. 논의

본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이상의 학생들로 주관적 경제상태나 회화수준에서 보통 정도라고 응답한 일반적인 간호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의 문화간호역량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는데, 임정혜(2017)의 연구에서 본 연구의 도구와는 상이하였으나 간호대학생 문화간호역량은 보통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본 결과에서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민감성이 가장 높았고, 문화적 경험이나 문화적 지식이 가장 낮았는데, 다문화 인식은 대상자의 문화적 가치에 민감하게 의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 자신과 다른 차이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자 간호사정을 경험 중이므로 문화적 인식, 민감성 능력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나, 문화적 경험과 지식이 낮았으므로 1학년 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다문화 교과목 내용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은미와 김선희, 2017).

대상자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수준은 2.77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적용한 백민자 등(2013)의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 점수 2.87점과 유사하였다. 또한 유장학과 최희정(2019)의 연구에서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점수 2.78점과도 유사하여 대체적으로 본 연구대상자가 일반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동화진과 최미숙, 2016)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점수 3.81점은 백민자 등(2013)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점수 3.70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동화진과 최미숙(2016)의 연구에서도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실습을 3학기 이상 경험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수행능력 점수는 3.80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인 3, 4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점수와 유사하여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점수는 보통 이상으로 간호에 필요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은미(2019)가 주장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수행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과 박병준 등(2016)이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수행능력은 순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주장

을 지지한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간호사들이 자기직업을 계속 수행하고 유지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임상실무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나 소진 상황과 연관성을 가지므로 이직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owin, 2002). 또한 이러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타인과 원만하게 의사소통하여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간호대학 재학 과정 중에 확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숙, 2011; 유장학과 최희정, 2019). 임상수행 능력은 교육과정과 임상실무 과정에서 습득한 간호 지식, 기술, 판단력 등을 간호실무에 능숙하게 적용하고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Barret & Myrick, 1998),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간호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가 분명하고 정신적으로 간호사로 활동하는 것에 확고한 신념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과 임상실습 가운데 의사소통 능력이나 적극성의 차이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Arthur, 1990).

본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문화간호역량과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전문직 자아개념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공감, 열린 마음과 이해심이라는 의사소통능력을 내포하고 있으므로(Arthur, 1990), 보건의료 측면에서 대상자 문화를 이해하고 조화로우며 가운데 돌봄을 제공하는 능력인 문화역량(Purnell, 2002)과 이러한 연관성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정혜(2017)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전문직 자아개념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하면서 올바른 다문화 신념을 갖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무에서 긍정적이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종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하나선과 박효미(2009)가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유사한 결과이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전문직에 대해서 간호의 본질

적 가치에 기초한 간호직에 대해 지니고 있는 느낌과 견해이므로, 인간의 근원적인 정신적 가치 측면에서 종교 요인이 관련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Arthur, 1990). 이러한 결과 외에도 주관적인 회화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화간호역량과 전문직 자아개념에 주요 영향요인 중에 하나가 통역 없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인관계이므로 이러한 요소가 연관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김경원 등, 2019; 임정혜, 2017; 유장학과 최희정, 2019).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문화간호역량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하였고, 임상수행능력도 문화간호역량은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윤경 등(2018)의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문화역량과 임상수행능력이 순상관관계를 보였고 문화역량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요인이라는 주장과 유사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문화간호역량이란 간호사·대상자 관계에서 대상자의 환경요인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대상자의 문화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 존재하는 건강요구, 건강과 질병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점을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상황에서 대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특수성을 고려하는 태도나 이와 관련된 기술 및 판단력 등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Barret & Myrick, 1998; Purnell, 2002). 하지만 문화간호역량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문직 자아개념에 비해 약하였는데 이는 임상수행능력이 간호사의 문화역량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와 일부 차이가 있다(류윤지와 이윤미, 2021). 그러나 선행연구는 응급실간호사의 외국인 환자 임상간호 수행능력이라는 특정한 상황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전반적인 임상수행능력 측정 결과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 추후 임상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차이를 검증할 추가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규간호사 시기에 성공적으로 직장생활에 적응하고 경력 개발과 경력 몰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이월숙, 2015). 임상간호 상황에서 대상자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임정혜, 2017). 따라서 실무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신규간호사의 상황에서 경력 몰입과 개발을 위해서는 대학교육과정 가운데 우선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문화간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교육 및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 중심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신뢰할 수 있는 대인관계 형성으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은 문화간호역량, 임상수행능력과 모두 순상관계를 나타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문화간호역량 순으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가운데 문화간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간호직을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 공감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과 문화간호역량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해 대학교육 과정 중에 실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간호역량 및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임상현장에서 예비 간호사들이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대상자 간호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및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는 이전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하는 일이 증가되었으나,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하는데 언어장벽이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의 부족으로 간호사들이 어려움을 경험하여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고 다문화 간호를 수행하는데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문화간호역량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으나, 문화적 지식과 경험은 문화적 가치나 인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문화적 지식과 문화적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보건교육 및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임상수행능력과 전문직 자아개념 수준도 보통 이상으로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간호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간호업무에 가지는 견해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인 주관적 외국어회화수준에 따라 문화간호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문화간호역량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 역량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에서 대상자 문제를 확인하고 간호를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간호역량과 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대상자 간호를 위한 보건교육 및 교과·비교과 프

로그랩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출한 조사연구이므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간호역량의 하위 요인 및 관련 요인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문화적 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요인 변수의 설명력이 보통수준이므로 향후 종단적 연구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경로분석 등이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강민아, 이수경. (2016).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4), 452-461.
2. 강혜영. (2015). 대학생 인성수준 및 요구도에 따른 인성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23(2), 1-19.
3. 김경숙. (2011).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3(4), 1991-2001.
4. 김경원, 김선희, 김영희, 김현경, 박혜숙, 이선희, 정금희. (2019). 간호사의 문화간호역량 측정도구의 개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0(3), 281-294.
5. 권영미, 윤은자. (2007).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3(3), 285-292.
6. 동화진, 최미숙. (2016).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셀프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23(4), 373-382.
7. 류윤지, 이윤미. (2021). 응급실 간호사의 문화역량과 문화간 의사소통역량이 외국인 환자 임상간호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환자간호학회지*, 14(1), 40-49.
8. 박병준, 박선정, 조하나. (2016).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연관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7), 220-227.
9. 백민자, 김월주, 류현숙. (2013).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5(6), 3353-3365.
10. 송경애, 노춘희. (1996).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과학회*, 26(1), 94-106.
11. 서원희. (2007). 간호전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12. 양혜주. (2020).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창의융합역량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1(11), 161-170.
13. 이병숙, 오익근, 이은미. (2011). 한국 거주 외국인 의의료서비스 경험. *간호행정학회지*, 17(2), 226-237.
14. 이원희, 김조자,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 (1991).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측정 도구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13, 17-29.
15. 이월숙. (2015).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예측모형[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6. 이은미, 김선희. (2017).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민감성이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4), 459-468.
17. 임정혜. (2017).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및 전문직 자아개념의 경로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5(12), 393-402.
18. 오원옥, 박은숙, 석민현, 임여진. (2016). 간호사

- 의 범문화효능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대한 간호과학학회지*, 46(2), 293-304.
19. 유장학, 최희정. (2019).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대처 및 임상실습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3), 553-561.
 20. 전은미. (2019).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 *한국자료분석학회*, 21(4), 2151-2161.
 21. 최미숙. (2005).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22. 최윤경, 안정원, 김금순. (2018). 간호사의 문화역량, 문화간 의사소통역량, 병원의 문화역량 지지가 외국인환자 간호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8(4), 518-543.
 23. Tian Yuzhuo, 윤희수, 최만규. (2021).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41(3), 177-194.
 24. 하나선, 박효미. (2009). 간호학생이 지각한 전문직 사회화가 역할갈등 및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임상간호연구*, 15(2), 47-56.
 25.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22). *2022년도 상·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대학용 편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서울.
 26. 한석영 (2014).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 개발[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27. 황종원, 박현주. (2019).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교수효율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3), 601-615.
 28. Arthur, D. (1990).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Master of Education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29. Barret, C. & Myrick, F.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 364-371.
 30. Cowin, L. S. (2002). The effects of nurses' job satisfaction on retention: An Australian perspectiv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32(5), 283-291.
 31. Purnell, L. (2002). The Purnell Model for Cultural Competenc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3(3), 193-196.
 32. Schwirian, P. M. (1978).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nurs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Nursing Research*, 27(6), 347-531.